

<div>2026년 7월, 출범 확정</div> <div>제물포구·영종구</div> <div>서구·검단구</div>		<div>보도자료</div>		<div>이제는 인천입니다</div> <div>2025 APEC INCHEON</div>	
		배포일자	2024년 6월 18일(화)		
			총 2매		
담당부서	관광마이스과	담당자	• 관광마케팅팀장 한창현 ☎440-4001		
			• 담당자 최정환 ☎440-400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태국 관광객 유치위해 현지서 ‘관광설명회’

- 2023~24 한-태국 상호방문의 해 연계, 동남아 핵심 태국 시장 협력우위 확보 -

- 인천관광 설명회, 현지 여행업계 세일즈콜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추진 -

인천시가 ‘2023~2024 한-태국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인천관광 활성화를 위해 태국 개별·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19일부터 22까지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 핵심시장인 태국 관광객 수요 선점을 위해 인천이 가진 문화·관광자원 등을 주제로 인천의 주요 관광지, 축제, 한류 콘텐츠 등을 홍보하는 인천관광 설명회와 세일즈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20일 주력도시 방콕에서 현지 주요 여행사 및 언론사 등을 초대해 관광·마이스·의료 등 분야별 우수한 인천관광 자원과 여건을 소개하는 미디어 인터뷰와 ‘인천관광 설명회’를 시작으로 양 도시 간의 우호 협력을 다진다. 이어 21일에는 유력 여행사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세일즈콜’과 업무간담회를 개최해 잠재 개별·단체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한국과 태국의 상호 방문 관광객 규모는 246만 명으로, 관광시장에서 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태국은 동남아 한류 전진기지의 중심으로 다양한 K-컬처 콘텐츠가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2023~24년 한-태국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양국 간 활발한 관광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상호 관광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우수 여행사들과 인천만의 관광 특화상품 개발 및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광객 유치에 공동 협력하고, 특히 현지 미디어 인터뷰와 공동 프로모션으로 실질적인 태국 관광객 유치와 인천관광의 매력을 태국 전역에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김두현 시 관광마이스과장은 “한국과 태국은 관광·문화·경제·무역 등의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잠재 관광객이 풍부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관광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양국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태국 「인천관광 설명회」 개최(2024.6.19.~22.)

 <p>2024 인천관광설명회 배너. 상단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의 로고가 있고, 중앙에는 '2024 인천관광설명회'와 'in Thailand'의 문구가 적혀 있다. 하단에는 다양한 관광 관련 기관들의 로고가 배열되어 있다.</p>	 <p>2024년 태국 인천관광 설명회 현장 사진. 많은 사람들이 회의실로 모인 모습이며, 좌측에는 안내 데스크가 보인다.</p>	 <p>2023년 중국(광저우, 정저우) 인천관광 설명회 현장 사진. 스크린에 중국어 자막이 표시된 발표 장면이 보인다.</p>
<p>2024년 태국 인천관광 설명회 백드롭</p>	<p>2023년 중국(광저우, 정저우) 인천관광 설명회(2023.10.25.~29.)</p>	